

---

#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의 평가와 발전방향

## - 대전충남충북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 Evaluation and Directions for the 4th Local Government Head Being Elected by Popular Vote

#### - Focus on the Perception in DeaJeon, ChungNam and ChungBuk -

---

최호택\*, 류상일\*\*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대불대 소방행정학과\*\*

Ho-Taek Choi(htchoi@pcu.ac.kr)\*, Sang-Il Ryu(0174111012@hanmail.net)\*\*

---

#### 요약

본 연구는 민선4기 자치단체장의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대전, 충남, 충북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12.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선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당(34.3%), 인물(29.7%), 바람(23.1%) 순으로 응답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리더십 형태를 조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은 대전광역시 시장의 리더십이 권위형 리더십(56.9%)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민주적 리더십(64.8%)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민주적 리더십(59.6%)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셋째, 향후 필요한 리더십 특성으로는 고도의 합리성(24.7%), 따뜻한 포용력(23.8%), 과감한 추진력(20.9%)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도정 운영방식에의 만족도를 분석해보면, 만족하는 편(44.7%)이 가장 많았다. 다섯째, 광역자치단체장의 부하 공무원 통솔능력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과 충청북도가 대전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하는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째, 주민들의 의견 수렴정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에 비해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많이 하는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일곱째, 지역국회의원과의 소통정도의 경우에도 대전광역시에 비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소통이 잘되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덟째, 의회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원활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 기초자치단체의 조정 및 통합 능력은 충청남도의 경우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잘하는편이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 중심어 : | 민선4기 | 자치단체장 |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 인식도 조사 |

#### 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evaluate the 4th local government heads and to grope for ways for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 the researcher surveyed public officials in Daejeon, Chungnam and Chungbuk regions. The main contents of the survey were such as the leadership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 heads, their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of their public pledges. And for the surveyed questionnaires, the researcher did cross-tabulation and analysis of variance using the SPSS 12.0 statistics program.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basis of most indexes, the provincial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was found to have received more affirmative support than those of Chungcheongbuk-do and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refore, it seems that provincial governor of Chungbuk and mayor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need to benchmark the leadership of the provincial governor of Chungnam.

■ keyword : | Evaluation and Directions | 4th Local Government | Perception in DeaJeon, ChungNam and ChungBuk |

## I. 서론

지방자치치를 실시한지도 10여년이 흘렀다. 그간 지방 정부를 둘러싼 환경조건은 급격하게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다양하고 근본적인 차원의 구조변화를 수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치 방향과 내용을 변화시키는 환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 구체적으로 우선,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정부 기능의 재편요구이다. 즉, 세계화의 흐름은 지방단위의 경제영역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크게 신장시키고 있고, 정보화는 지방정부의 경영능력의 함양과 지식정부로의 이행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의 디지털화 및 행정체계의 네트워크화를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의 성장과 자치행정의 민주성 요구이다. 즉, 오늘날은 NGO나 시민단체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의 강화 및 자치행정으로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시민참여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공공서비스공급에 있어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원리의 도입과 시장성의 강화 추세이다. 즉, 정부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있어서 행정서비스의 이행, 분담, 비용분담효과를 목표로 하여 민영화, 민간위탁, 제3섹터방식등의 도입과 수익자부담원칙이 강조되고 있다[2]. 마지막으로, 새로운 21세기에서는 소득분배와 삶의 질의 개선이 주요목표가 되고 있으며, 또한 복지, 문화, 환경 분야가 새로운 수요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지방정부의 구조나 기능 및 운영 방식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울러,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선4기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과 리더십 특성, 시정운영의 특성, 공약 평가 등에 대하여 실증적인 측면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민선4기 자치단체장을 중간 평가해보고 이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전, 충남, 충북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II. 자치단체장에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자치단체장 평가의 필요성과 기능

자치단체장의 평가는 다양한 행정서비스욕구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3]. 첫째, 자치단체장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변화를 파악하여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둘째, 자치단체장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셋째, 자치단체장은 평가를 통하여 고객인 시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제공해야할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자치단체장은 평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평가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연결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서비스를 산출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4].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결과의 정책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평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주민이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정책방향의 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 2. 리더십 유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사도정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정당, 중앙정부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리더십 유형은 매우 복잡해 질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리더십의 유형화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Lippit와 R.K. White에 의한 분류방법과 B.B.Stogdill의 속성이론과 Yukl의 다중연결모델 등에 의한 분류가 있다[5]. 본 연구에서는 고전적이면서도 일반적인 모형인 Lippit와 White가 주장한 유형, 즉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등을 조사모형으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Lippit와 White가 주장한 세 가지 유형은 서로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민주형 리더십이 권위적인 리더십이나 자유방임형 리더십보다 더 우수하다는데 의견이

함치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 충남, 충북 지사의 리더십 유형을 살펴보고, 아울러 각 자치단체장에 대한 도정운영 방식에의 만족도를 살펴서, 리더십 유형에 따른 도정운영의 만족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3. 자치단체장 평가에 대한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오늘날 자치단체장 평가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광역단체장의 리더십 유형과 리더십 특성을 파악해 보고, 아울러 도정운영 방식에의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광역단체장의 시정운영의 특성 즉, 부하통솔능력, 주민의견 수렴, 지역의원과 소통 정도 등의 시·도정 운영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광역단체장 공약 이행을 평가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대전, 충남, 충북 지역 공무원 590명을 대상으로 2008년 6월동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인면접법에 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광역단체장의 리더십 유형과 리더십 특성, 광역단체장의 시정운영의 특성, 광역단체장 공약 평가 등을 조사하였고, 조사된 설문지는 SPSS 12.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분석결과

### 1. 조사 개요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 개요 및 조사방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표 2] 참조), 소속기관별로 대전광역시 공무원이 191명 32.4%, 충청남도 199명 33.7%, 충청북도 200명 33.9%였고, 남성이 472명 80%, 여성이 20%로 대전·충남·충북 지역에 남성 공무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급별로는 6급과 7급이 각각 37.1%, 31.4%로 많았고, 학력별로는 대졸과 대학원졸 이상이 각각 62.2%, 17.3%로 많았다. 최근 들어 공무원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표 1. 연구 및 조사방법의 개요

구분	내용
조사개요	주요 조사·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광역단체장의 리더십 유형과 리더십 특성 - 광역단체장의 시정운영의 특성 - 광역단체장 공약 평가
조사대상	대전, 충남, 충북 지역 공무원
조사규모	유효표본 590명 - 대전광역시: 191명 - 충청남도: 199명 - 충청북도: 200명
조사지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역
조사방법	대인면접법(face-to-face면접)
표본추출	층화표본추출(stratified sampling)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9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통계분석	SPSS Win 12.0통계프로그램
통계기법	빈도 및 교차분석, 분산분석
조사기간	2008년 6월

표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소속기관	대전광역시	191	32.4
	충청남도	199	33.7
	충청북도	200	33.9
	합계	590	100.0
성별	남성	472	80.0
	여성	118	20.0
	합계	590	100.0
직급	5급 이상	88	14.9
	6급	219	37.1
	7급	185	31.4
	8급	67	11.4
	9급	7	1.2
	기타	24	4.1
	합계	590	100.0
학력	중졸 이하	1	.2
	고졸	63	10.7
	전문대졸	57	9.7
	대졸	367	62.2
	대학원졸 이상	102	17.3
	합계	590	100.0

2. 광역자치단체장의 리더십유형과 사도정운영에 관한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선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당(34.3%), 인물(29.7%), 바람(23.1%) 순으로 응답결과가 도출되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바람(42.1%)과 정당(41.6%)이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나왔고, 충청남도의 경우 인물(38.7%)과 정당(28.1%)이 많은 응답결과가 나왔으며,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인물(41%)과 정당(33.5%)이 많은 응답결과가 나왔다.

표 3.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선되는데 가장 큰 요인

구분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선되는데 가장 큰 요인은?						전체
	정당	인물	바람 (분위기)	출신 지	기타		
대전	14	79	16	80	0	1	190
	7.4%	41.6%	8.4%	42.1%	.0%	.5%	100.0%
충남	30	56	77	32	2	2	199
	15.1%	28.1%	38.7%	16.1%	1.0%	1.0%	100.0%
충북	25	67	82	24	2	0	200
	12.5%	33.5%	41.0%	12.0%	1.0%	.0%	100.0%
전체	69	202	175	136	4	3	589
	11.7%	34.3%	29.7%	23.1%	.7%	.5%	100.0%

$\chi^2: 101.755 / df: 10 / P<0.05$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리더십 형태를 조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은 대전광역시 시장의 리더십이 권위형 리더십(56.9%)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민주적 리더십(64.8%)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충청북도의 경우 민주적 리더십(59.6%)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4. 소속기관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장의 리더십 형태

구분	광역자치단체장의 리더십 형태는?			전체
	권위형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자유방임형 리더십	
대전	107	68	13	188
	56.9%	36.2%	6.9%	100.0%
충남	57	129	13	199
	28.6%	64.8%	6.5%	100.0%
충북	67	118	13	198
	33.8%	59.6%	6.6%	100.0%
전체	231	315	39	585
	39.5%	53.8%	6.7%	100.0%

$\chi^2: 38.591 / df: 4 / P<0.05$

향후 필요한 리더십 특성으로는 고도의 합리성(24.7%), 따뜻한 포용력(23.8%), 과감한 추진력(20.9%)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의 경우 통큰 정치력(28.6%)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의 경우 과감한 추진력(29.4%)이, 충청북도의 경우 고도의 합리성(26.9%)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5. 필요한 리더십 특성

구분	필요한 리더십 특성은?						전체
	뛰어난 행정력	통큰 정치력	과감한 추진력	고도의 합리성	따뜻한 포용력	기타	
대전	32	54	21	40	41	1	189
	16.9%	28.6%	11.1%	21.2%	21.7%	.5%	100.0%
충남	14	17	58	51	52	5	197
	7.1%	8.6%	29.4%	25.9%	26.4%	2.5%	100.0%
충북	34	19	43	53	46	2	197
	17.3%	9.6%	21.8%	26.9%	23.4%	1.0%	100.0%
전체	80	90	122	144	139	8	583
	13.7%	15.4%	20.9%	24.7%	23.8%	1.4%	100.0%

$\chi^2: 61.912 / df: 10 / P<0.05$

도정 운영방식에의 만족도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만족하는 편(44.7%)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경우 도정운영에 만족하는 응답자가 많은 반면, 대전광역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소속기관에 따른 도정운영 방식에의 만족정도

구분	도정운영 방식에의 만족정도는?					전체
	매우 불만족	만족하지 않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대전	5	35	85	59	6	190
	2.6%	18.4%	44.7%	31.1%	3.2%	100.0%
충남	4	15	45	95	39	198
	2.0%	7.6%	22.7%	48.0%	19.7%	100.0%
충북	0	17	62	108	11	198
	.0%	8.6%	31.3%	54.5%	5.6%	100.0%
전체	9	67	192	262	56	586
	1.5%	11.4%	32.8%	44.7%	9.6%	100.0%

$\chi^2: 76.898 / df: 8 / P<0.05$

성별에 따른 도정운영 방식에의 만족정도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도정운

영 방식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성별에 따른 도정운영 방식에의 만족정도

구분	도정운영 방식에의 만족정도?					전체
	매우 불만족	만족하지 않는편	보통	만족하는편	매우 만족	
남성	9	52	139	219	50	469
	1.9%	11.1%	29.6%	46.7%	10.7%	100.0%
여성	0	15	53	43	6	117
	.0%	12.8%	45.3%	36.8%	5.1%	100.0%
전체	9	67	192	262	56	586
	1.5%	11.4%	32.8%	44.7%	9.6%	100.0%

$\chi^2$  : 14.572 / df: 4 / P<0.05

직급에 따른 도정운영 방식에의 만족정도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6,7,8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5급 이상과 9급이 도정운영 방식에 더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직급에 따른 도정운영 방식에의 만족정도

구분	도정운영 방식에의 만족정도?					전체
	매우 불만족	만족하지 않는편	보통	만족하는편	매우 만족	
5급 이상	1	3	15	48	21	88
	1.1%	3.4%	17.0%	54.5%	23.9%	100.0%
6급	6	27	70	93	21	217
	2.8%	12.4%	32.3%	42.9%	9.7%	100.0%
7급	1	27	72	75	10	185
	.5%	14.6%	38.9%	40.5%	5.4%	100.0%
8급	0	6	29	27	3	65
	.0%	9.2%	44.6%	41.5%	4.6%	100.0%
9급	0	0	0	6	1	7
	.0%	.0%	.0%	85.7%	14.3%	100.0%
기타	1	4	6	13	0	24
	4.2%	16.7%	25.0%	54.2%	.0%	100.0%
전체	9	67	192	262	56	586
	1.5%	11.4%	32.8%	44.7%	9.6%	100.0%

$\chi^2$ : 60.692 / df: 20 / P<0.05

### 3. 광역자치단체장의 사도정운영의 특성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시·도정운영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하 통솔능력, 주민의견 수렴 정도, 지역국회의

원과의 의사소통 정도, 국책사업 유치역량, 자치단체 조정 능력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장의 부하 공무원 통솔능력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과 충청북도가 대전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하는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9. 소속기관에 따른 부하 공무원의 통솔능력

구분	부하 공무원의 통솔능력?					전체
	매우 못함	잘 못하는 편	보통	잘 하는 편	매우 잘함	
대전	8	37	76	61	9	191
	4.2%	19.4%	39.8%	31.9%	4.7%	100.0%
충남	3	6	25	93	71	198
	1.5%	3.0%	12.6%	47.0%	35.9%	100.0%
충북	0	9	41	127	21	198
	.0%	4.5%	20.7%	64.1%	10.6%	100.0%
전체	11	52	142	281	101	587
	1.9%	8.9%	24.2%	47.9%	17.2%	100.0%

$\chi^2$ : 159.532 / df: 8 / P<0.05

광역자치단체장의 부하 공무원 통솔능력에 대한 직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6,7,8급이 비해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잘하는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직급에 따른 부하 공무원의 통솔능력

구분	부하 공무원의 통솔능력?					전체
	매우 못함	잘 못하는 편	보통	잘 하는 편	매우 잘함	
5급 이상	0	1	9	46	32	88
	.0%	1.1%	10.2%	52.3%	36.4%	100.0%
6급	5	29	47	97	40	218
	2.3%	13.3%	21.6%	44.5%	18.3%	100.0%
7급	4	16	56	88	21	185
	2.2%	8.6%	30.3%	47.6%	11.4%	100.0%
8급	1	3	24	32	5	65
	1.5%	4.6%	36.9%	49.2%	7.7%	100.0%
9급	0	0	0	5	2	7
	.0%	.0%	.0%	71.4%	28.6%	100.0%
기타	1	3	6	13	1	24
	4.2%	12.5%	25.0%	54.2%	4.2%	100.0%
전체	11	52	142	281	101	587
	1.9%	8.9%	24.2%	47.9%	17.2%	100.0%

$\chi^2$ : 63.324 / df: 20 / P<0.05

주민들의 의견 수렴정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에 비해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많이 하는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1. 주민들의 의견 수렴정도

구분	주민들의 의견 수렴정도는?					전체
	전혀 반영하지 않음	적게 하는 편	보통	많이 하는 편	매우 많이	
대전	4	28	70	82	7	191
	2.1%	14.7%	36.6%	42.9%	3.7%	100.0%
충남	2	8	45	102	41	198
	1.0%	4.0%	22.7%	51.5%	20.7%	100.0%
충북	1	10	65	116	5	197
	.5%	5.1%	33.0%	58.9%	2.5%	100.0%
전체	7	46	180	300	53	586
	1.2%	7.8%	30.7%	51.2%	9.0%	100.0%

$\chi^2: 75.574 / df: 8 / P<0.05$

지역국회의원과의 소통정도의 경우에도 대전광역시에 비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소통이 잘되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12. 지역국회의원과 소통정도

구분	지역국회의원과 소통정도는?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대전	9	59	65	55	3	191
	4.7%	30.9%	34.0%	28.8%	1.6%	100.0%
충남	2	11	50	87	44	194
	1.0%	5.7%	25.8%	44.8%	22.7%	100.0%
충북	2	23	79	84	10	198
	1.0%	11.6%	39.9%	42.4%	5.1%	100.0%
전체	13	93	194	226	57	583
	2.2%	16.0%	33.3%	38.8%	9.8%	100.0%

$\chi^2: 113.831 / df: 8 / P<0.05$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유로는 소속정당이 달라서(38.2%), 각자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이 달라서(31.7%), 정치적 경쟁의식 때문에(25.2%)라고 응답하고 있었다.

표 13. 그렇지 않은 이유

구분	그렇지 않은 이유는?				전체
	소속정당이 달라서	각자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이 달라서	정치적 경쟁의식 때문에	기타	
대전	25	23	21	2	71
	35.2%	32.4%	29.6%	2.8%	100.0%
충남	7	8	5	3	23
	30.4%	34.8%	21.7%	13.0%	100.0%
충북	15	8	5	1	29
	51.7%	27.6%	17.2%	3.4%	100.0%
전체	47	39	31	6	123
	38.2%	31.7%	25.2%	4.9%	100.0%

$\chi^2: 7.414 / df: 6 / P>0.05$

국책사업 유치나 국고보조금 유치시 자치단체장 역량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의 경우 매우 강함(43.1%)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의 경우 강한편이라고 응답하였고, 대전광역시의 경우 보통이 가장 많은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표 14. 국책사업 유치나 국고보조금 유치시 역할

구분	국책사업 유치나 국고보조금 유치시 역량은?					전체
	매우 부족함	부족한 편	보통	강한 편	매우 강함	
대전	17	47	87	30	9	190
	8.9%	24.7%	45.8%	15.8%	4.7%	100.0%
충남	5	4	30	73	85	197
	2.5%	2.0%	15.2%	37.1%	43.1%	100.0%
충북	1	11	48	111	26	197
	.5%	5.6%	24.4%	56.3%	13.2%	100.0%
전체	23	62	165	214	120	584
	3.9%	10.6%	28.3%	36.6%	20.5%	100.0%

$\chi^2: 227.285 / df: 8 / P<0.05$

강한 이유로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그동안 많은 성과에서 입증되어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대전광역시의 경우 치밀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이 가장 많이 응답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15. 강한 이유

구분	강한 이유는?				전체
	그동안 많은 성과에서 입증되어서	타 자치단체장 보다 정치적 역량이 뛰어나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	기타	
대전	5 12.8%	4 10.3%	30 76.9%	0 .0%	39 100.0%
충남	53 34.0%	38 24.4%	60 38.5%	5 3.2%	156 100.0%
충북	55 39.0%	42 29.8%	41 29.1%	2 1.4%	141 100.0%
전체	113 33.6%	84 25.0%	131 39.0%	7 2.1%	336 100.0%

$\chi^2$ : 32.343 / df: 8 / P<0.05

부족한 이유로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타 자치단체장보다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74.2%)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6. 부족한 이유

구분	부족한 이유는?				전체
	그동안 보여준 실망 때문에	타 자치단체장 보다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치에 대한 열의가 없기 때문에	기타	
대전	14 21.2%	49 74.2%	3 4.5%	0 .0%	66 100.0%
충남	5 38.5%	3 23.1%	4 30.8%	1 7.7%	13 100.0%
충북	1 10.0%	5 50.0%	2 20.0%	2 20.0%	10 100.0%
전체	20 22.5%	57 64.0%	9 10.1%	3 3.4%	89 100.0%

$\chi^2$ : 26.628 / df: 6 / P<0.05

의회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전반적으로 원활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의회와의 관계

구분	의회와의 관계는?					전체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	원활한 편임	매우 원활함	
대전	0 .0%	4 2.1%	71 37.2%	106 55.5%	10 5.2%	191 100.0%
충남	2 1.0%	4 2.0%	31 15.7%	121 61.1%	40 20.2%	198 100.0%
충북	0 .0%	8 4.0%	56 28.3%	129 65.2%	5 2.5%	198 100.0%
전체	2 .3%	16 2.7%	158 26.9%	356 60.6%	55 9.4%	587 100.0%

$\chi^2$ : 62.438 / df: 8 / P<0.05

기초자치단체의 조정 및 통합 능력은 충청남도의 경우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잘하는편이라고 대답하고 있고,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많은 응답자들이 잘하는 편이라고 대답하고 있지만, 대전광역시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18. 기초자치단체 조정 및 통합능력

구분	기초자치단체 조정 및 통합 능력은?					전체
	매우 못함	못하는 편	보통	잘하는 편	매우 잘함	
대전	3 1.6%	17 8.9%	96 50.3%	71 37.2%	4 2.1%	191 100.0%
충남	3 1.5%	5 2.5%	30 15.2%	119 60.1%	41 20.7%	198 100.0%
충북	0 .0%	20 10.1%	71 35.9%	103 52.0%	4 2.0%	198 100.0%
전체	6 1.0%	42 7.2%	197 33.6%	293 49.9%	49 8.3%	587 100.0%

$\chi^2$ : 113.565 / df: 8 / P<0.05

충청권 현안과제에 대한 노력 정도는 다음과 같이 전반적으로 노력하는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었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19. 충청권 현안과제에 대한 노력 정도

구분	충청권 현안과제에 대한 노력 정도는?					전체
	진혀 노력하지 않음	적게 하는 편	보통	많이 하는 편	매우 많이	
대전	1	15	59	87	29	191
	.5%	7.9%	30.9%	45.5%	15.2%	100.0%
충남	2	6	23	89	78	198
	1.0%	3.0%	11.6%	44.9%	39.4%	100.0%
충북	0	9	25	135	29	198
	.0%	4.5%	12.6%	68.2%	14.6%	100.0%
전체	3	30	107	311	136	587
	.5%	5.1%	18.2%	53.0%	23.2%	100.0%

$\chi^2$ : 78.544 / df: 8 / P<0.05

4.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 추진 평가 분석결과

대전광역시장 공약 추진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이 3000만그루 나무심기나 3대하천 생태복원사업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평가되고 있다. 즉, 대전광역시 인구밀집 지역으로 그간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가기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그 일환으로 문화와 환경들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러한 결실로 3000만그루 나무심기나 3대하천 생태복원사업 등이 높게 평가된 것이라 사료된다.

표 20. 대전광역시장 공약 추진 평가

공약 추진 사항	N	평균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191	5.8115
대덕특구의 전략적 육성	191	6.4293
3000만그루 나무심기	191	7.9319
3대하천 생태복원사업	191	7.9791
빠르고 편리한 도시교통체계 구축	191	6.8942
무지개 프로젝트	191	7.0314
문화인프라 및 콘텐츠 지속확충	191	6.5158
원도심 U-턴 프로젝트	191	6.5183
교육협력사업 확대	191	6.2147
명품도시 만들기	191	6.2984

※ 평균의 경우 1은 매우 못함이고, 10은 매우 잘함임

충청남도의 공약 추진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이 국방대 논산유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 등이 높게 평가되고 있었다.

충남의 경우에는 계룡시 등 군사적 요충이고, 서해안을 통한 활발한 무역 추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표 21. 충청남도지사 공약 추진 평가

공약 추진 사항	N	평균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200	7.8232
국방대 논산유치	200	8.7222
시군 균형발전 토대 마련	200	8.2030
충남개발공사 설립 운영	200	7.6313
외자유치단 구성운영	200	8.3485
2010년까지 1,000개 기업유치	200	8.222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	200	8.9596
국제가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0	7.7716
농특산물 수출 유통기획단 운영	200	7.8223
보령-안면간 연육교 건설	200	8.2626

※ 평균의 경우 1은 매우 못함이고, 10은 매우 잘함임

충청북도의 공약 추진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 경제특별도를 야심차게 내걸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였다.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의 지사의 공약사항이 지역경제를 살리기인 만큼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신도시 건설 즉, 진천·음성일원 혁신도시와 충주 기업도시 건설 등은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22. 충청북도지사 공약 추진 평가

공약 추진 사항	N	평균
충북인재양성재단(10년간 1,000억조성 도내우수학생 장학금지급)	199	7.4847
충북회관(300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서울에 건립)	199	7.7744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199	8.5051
C-Project 추진(차이나 월드조성 사업)-위락,속박, 차이나타운등	199	7.0408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199	7.3520
신도시 건설(진천읍성일원 혁신도시, 충주 기업도시 건설)	199	6.7041
2010제천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전시, 교류, 학술등 6분야)	199	7.2347
국제관광행사 추진(한국관광총회,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등)	199	7.3776
밀레니엄 타운 조성(교육문화 및 건전 여가선용 공간조성)	199	6.8205
BIO KOREA 2008 OSONG 개최(바이오 전문박람회 추진)	199	7.4898

※ 평균의 경우 1은 매우 못함이고, 10은 매우 잘함임

#### IV. 결론

본 연구는 민선4기 자치단체장의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대전, 충남, 충북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광역단체장의 리더십 유형과 리더십 특성, 광역단체장의 시정운영의 특성, 광역단체장 공약 평가 등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설문지는 SPSS 12.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선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당(34.3%), 인물(29.7%), 바람(23.1%) 순으로 응답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장이의 리더십 형태를 조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은 대전광역시 시장의 리더십이 권위형 리더십(56.9%)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민주적 리더십(64.8%)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민주적 리더십(59.6%)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셋째, 향후 필요한 리더십 특성으로는 고도의 합리성(24.7%), 따뜻한 포용력(23.8%), 과감한 추진력(20.9%)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도정 운영방식에

의 만족도를 분석해보면, 만족하는 편(44.7%)이 가장 많았다. 다섯째, 광역자치단체장의 부하 공무원 통솔능력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과 충청북도가 대전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하는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째, 주민들의 의견 수렴정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에 비해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많이 하는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일곱째, 지역국회의원과의 소통정도의 경우에도 대전광역시에 비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소통이 잘되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덟째, 의회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원활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 기초자치단체의 조정 및 통합 능력은 충청남도의 경우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잘하는편이라고 대답하고 있고,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많은 응답자들이 잘하는편이라고 대답하고 있지만, 대전광역시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우선, 기존 리더십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민주적 리더십의 자치단체장이 부하직원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이론적인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리더십 특성의 차이에 따라서 부하통솔 능력, 주민의견 수렴, 의원과의 소통 등 시·도정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난다는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장이 애초에 제시한 공약 가운데 꾸준한 노력을 펼친 공약이 높게 평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 [1] 류제현, 지방정부의 거버넌스형 시장리더십 모색,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3호, 2002.
- [2] 오재일, 로컬거버넌스와 정부간 관계, 지방행정, 제50권, 577호, 2001.
- [3] 최병대, 권경득, 강인호, 지방자치단체 시민평가제의 효과적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1호, 2000.
- [4] Epstein and D. Paul, *Using Performance Measurement in Local Government: A Guide to*

*Improving Decisions,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Inc. 1984.

- [5] 이승빈, *광역단체장의 리더십유형과 지방행정개혁: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세미나 지방자치 2년과 지방의 변화, 1997.

### 저 자 소 개

최 호 택(Ho-Taek Choi)

종신회원



- 2000년 7월 : 영국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행정학 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사회대학 행정학과 조교수
  - 2005년 7월 ~ 현재 : 배재대학교 자치여론연구소 소장
  - 2006년 11월 ~ 현재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 평가위원
  - 2006년 11월 ~ 현재 : 충청남도 혁신분권연구단 위원
  - 2006년 1월 ~ 현재 :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한국공공행정학회 연구위원장
- <관심분야> : 시민참여, 지방재정, 지방위기관리정책

류 상 일(Sang-Il Ryu)

정회원



- 2007년 8월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6년 11월 ~ 2008년 5월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
  - 2008년 6월 ~ 2008년 8월 : 충남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 2008년 9월 ~ 현재 : 대불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재난관리, 소방행정, 네트워크이론